

## 443일 기다린 단죄...‘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법원, 1심서 내란죄 인정...국헌문란 목적·폭동도  
김용현 ‘중요임무 종사’ 징역 30년...노상원 18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관련기사 2·8·10·19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으로, 헌정 질서를 뒤흔든 조유의 계엄 사태에 대해 사법부가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바로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이 사건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 않는 점, 물리적 행위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을 행사한 예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범죄 전력도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해 왔으며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작년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2면에 계속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낸 한국 선수들이 메달을 목에 걸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노도희, 심석희. 연합뉴스

## ‘대역전극’ 쇼트트랙 여자대표팀, 8년만에 ‘금’

〈3000m 계주〉

4분4초014로 결승선 통과...2018 평창올림픽 이후 정상 탈환  
최민정, 역대 올림픽 韓 최다 메달 6개·동계 최다 금 4개 타이



쇼트트랙 여자대표팀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 여자 3000m 계주에서 정상에 올랐다. 8년 만의 금메달이다.

▶관련기사 15면  
최민정·김길리(이상 성남시청)·노도희(화성시청)·심석희(서울시청)로 꾸려진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서 4분4초014의 기록으로 이탈리아(4분4초107), 캐나다(4분4초314)를 제치고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날 우승으로 한국은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의 최가은(세화여고)에 이어 두 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국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올림픽 계주에서 우승한 건 2018 평창 대회 이래 8년 만이다.

특히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 최민정은 이번 메달로 통산 6번째 메달을 목에 걸며 진중오(사격)와 김수녕(양궁), 이승훈(스피드 스케이팅)이 보유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 타이틀을 이뤘다. 최민정은 앞선 두 차례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한 바 있다.

또 쇼트트랙 전이경(4개)과 더불어 한국 선수 동계 올림픽 최다 금메달 타이틀

록을 작성했다.

아울러 이번 대회 쇼트트랙 종목 중 처음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여자 1000m에서 한국 여자부 첫 동메달을 획득했던 김길리 역시 생애 처음 참가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 첫 멀티 메달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

캐나다, 네덜란드, 이탈리아와 경쟁한 한국 대표팀은 1번 주자 최민정이 선두를 제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이후 20바퀴를 앞둔 상황에서 2번 주자 김길리가 직선주로에서 네덜란드에 밀려 3위까지 밀려났다.

대표팀은 결승선 16바퀴를 남기고 고비를 겪었다.

앞서 달리던 네덜란드가 첫 번째 곡선 주로에서 휘청이며 넘어졌고, 뒤따르던 최민정이 접촉하며 선두 그룹과 격차가 벌어졌다.

하지만 최민정은 중심을 잘 잡으며 넘어지지 않았고, 다시 속도를 올려 맹추격에 나섰다. 이어 달린 김길리, 노도희, 심석희는 선두 그룹을 따라잡았다.

캐나다, 이탈리아에 이어 3위로 달리던 한국은 결승선 4바퀴를 남기고 대역전극을 만들기 시작했다.

힘이 좋은 심석희가 최민정을 한껏 밀어 주면서 캐나다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최민정은 2위를 잘 지켰고, 마지막 주자 김길리가 결승선 2바퀴를 남기고 선두 이탈리아의 아리안나 폰타나를 제치고 결국 선두로 치고 나갔다.

이후 김길리는 인코스를 잘 지켜내며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해 금빛 질주 대미를 장식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토·일 신문 쉽니다

온라인 뉴스는 gwangnam.co.kr서 계속

## ‘전남광주통합특별법’ 24일 본회의 통과 유력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이르면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8·9·11면

더불어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6·3 지방선거에서 적용될 행정통합법을 최우선 처리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개최될 본회의와 관련, 우리가 처리할 법안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며 이같이 회의 결과를 전했다.

행정통합법은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세 권역의 통합특별법이 함께 묶여 있다.

민주당은 이어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임시국회 회기 중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외공직)과 과중대 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 국민주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밝힌 법안 처리 순서는 행정통합법, 사법개혁법안, 검찰개혁법안, 국민주표법, 3차 상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등의 순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OK! 지금은 전남시대

2026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

신청대상

도내 청년(1998~2007년 출생) / 도내 거주 2년 이상

지원내용

1인당 문화복지포인트 25만원 지급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시 거주자 → 광주은행 / 군 거주자 → 농협

사용분야

도서, 영화, 학원수강, 체육시설, 숙박시설 등

2026년 달라진 점

기존 문화누리카드 대상자 차액지급 → 전액지급(40만원\*)  
\* 문화누리카드 15만원 + 문화복지카드 25만원

신청기간

2026년 2월~3월 / 8월

전라남도